

식스

수능 국어의 새로운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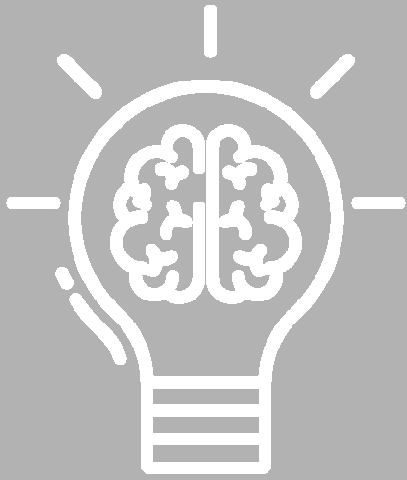
센스

" 6월 모의평가
국어

씹어먹는 분석집 "

Six

6



내용과 목차

I

분석 준비

00	서문	006p
01	이 책 활용법	007p
	- 6월 모의평가 01~03	

II

독서 분석

02	수능 독서란	016p
03	구분하며 읽자	020p
	6월 모의평가 10~13	021p
04	읽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	029p
	6월 모의평가 14~17	032p
	6월 모의평가 04~09	041p

보서

준비

I

00 서문

이 콘텐츠를 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내 자체적으로 연구한 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가끔씩 들어오는 국어 과외로 쓸 자료들도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책 또는 콘텐츠의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국어는 해설을 통해 공부해야 한다.

국어 문제를 푸는 것은 국어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한 반복연습에 불과하다. 실제 국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국어 지식 및 능력을 기르는 근거 자료는 해설에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수험생은 문제 푸는데 집중하다보니, 해설을 대충 읽고 넘어가곤 한다. 이 책은 해설을 중심 콘텐츠로 기획하여, 해설을 통해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느끼길 바란다.

두 번째로, 개념과 문제풀이의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

개념과 문제풀이의 거리는 개념을 통해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개념을 통해 문제풀이를 하는 그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내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지만, 모든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며 거리감을 줄어드는 감각을 느끼길 바란다.

세 번째로, 수능 국어에 필요한 논리적 '개념'을 알아야 한다.

분명 평가원이 수능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년 수능 홈페이지에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 정리된 자료집이 배포된다는 것을 어떤 학생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직접 평가원에 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수능에 필요한 논리적 '개념'을 알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일도 하면서 살고 있기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박을 수도 없다.

혹시라도, 그 놈의 맞지도 않는 국어수업 내용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만 혹시라도, 이 콘텐츠를 통해 치유 받았으면 만족감이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를 통해

수정과 퇴고를 마친 책을 혹시 팔 수 있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또 그것 나름대로 좋을 것 같다.

01 | 이 책 활용법

이 책은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취사 선택해주길 바란다)

나는 지문을 읽고, 그 다음 문제와 지문을 보면서 1:1 대응 및 추론을 한다. 결국 지문을 2번 읽고, 문제와 선지를 1번 읽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1. 사용하는 기호에 대해

Keyword 지문을 읽거나 보기를 읽을 때 기억에 남기는 주제나 제재다.

- 지문을 읽을 때, 개념과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하다.
- 보기를 읽을 때, 개념이나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 및 '특정 단어'를 기억한다.

REMARK 지문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 확인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다.

- 지문의 경우, 적용된 '논리학, 기호학' 내용을 정리한다.
- 문제를 풀 때, 출제원리와 연관되어 있는 '논리학' 내용을 정리한다.

2. [들어가기 전]에 활용법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글을 구조화를 한다.

[들어가기 전]에는 문제를 풀기 전에 글을 읽으면서, 내가 구조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적힌 도구를 확인하고, 내가 구조화한 것을 통해 글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해보자.

특정 내용에 형광펜을 치는 것

주요 내용

동일한 형광펜으로 반복되는 것

주요 내용의 (변주되는) 반복

동일한 색이지만,
칠해져있지 않고 색 밑줄로 표시되는 것

주요 내용의 주변 내용

동일한 색이지만,
칠해져있지 않고 색 글자로 표시되는 것

주요 내용의 반대되는 내용

다른 색 형광펜

또 다른 주요 내용

원 숫자 (① ② ③)

'순서'에 대한 표시

숫자 + 점 (1. 2. 3.),
혹은 원 글자 (㉠ ㉡ ㉢)

'나열'에 대한 표시

01 ~ 03

[들어가기 전에] 적용예제

들어가기 전에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Keyword 1 '어휘력, 읽기요소'와 '매튜효과'

'어휘력' 관련 학문에서 ㉠ -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읽기요소' 관련 학문에서 ㉠' -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학에서 '매튜효과'를 통해 ㉠" -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1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 ㉠-2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Keyword 2 '매튜효과'와 매튜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것'

- ㉠-1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름
 -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름
- ㉠-2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Keyword 3 **매튜효과**로 설명하는 연구의 의미 (혹은 가치)

REMARK 1 부분과 전체 관계를 확인하자.

‘어휘력’은 ‘읽기요소’의 한 부분으로, 첫 문단에서 ‘읽기요소’를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으로 정리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어휘력’에 관련하여 정리했으며, 세 번째 문단에서 ‘읽기요소’로 확장했다.

이처럼 개념들 및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REMARK 2 꼭 [들어가기 전에] 읽고 문제를 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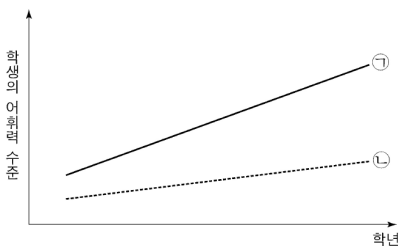
[들어가기 전에]는 글을 구조화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구조화를 통한 지문독해에 대해서 연습하고 이후, 문제를 풀어서 자신이 얼마나 글을 구조화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문제의 답의 경우 [지문 마무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3.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3. [해설] 활용법

[해설]은 지문에서 선지의 근거를 일일이 표시했다.

일반적으로 내용일치 및 단순추론 문제는 1:1대응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1:1을 대응을 선지와 지문에 동일한 형광펜을 표시하여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형광펜 사용	동일 색으로 칠하여 선지의 근거 표시
두 줄 취소선	선지의 틀린 점을 표시

해당 콘텐츠 활용 방법

- 형광펜 된 지문의 앞뒤를 보면서 문맥을 확인하거나
-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글의 구조 관련된 표현들을 확인하거나
- 선지와 지문에서의 근거 문장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1 ~ 03

[해설] 적용예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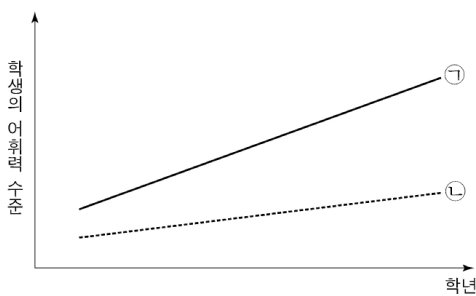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1번 문제의 '㉠ 읽기 능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REMARK 4 수식표현과 수식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프 해석>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그래프 차이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두 그래프의 시작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학년'(동일한 x좌표)에서 '학생의 어휘력 수준'이 다르다(다른 y좌표). 두 번째로는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동일 '학년' 변화폭에 대해, '학생의 어휘력 수준'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어휘력이 높은 학생이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동일 학년이 지난 동안 더 많은 어휘력을 상승시키며, 이와 같은 상승 차이가 두 학생간의 어휘력 격차로 이어진다.

REMARK 5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를 꼭 분석해보자.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차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1번의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1번의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④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1번의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3. <보기>의 관점에서 ④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번의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4. [지문 마무리] 활용법

지문 마무리의 경우,

해설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동일한 색으로 칠한 지문독해 자료와 선지에 잘못된 부분을 표시한 정답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문독해 자료에서는, 전체적인 문제가 지문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답지에서는, 선지의 틀린 점을 확인하면서 선지에서 문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 03

[지문 마무리] 적용예제

지문 마무리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A]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REMARK 6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문 전체를 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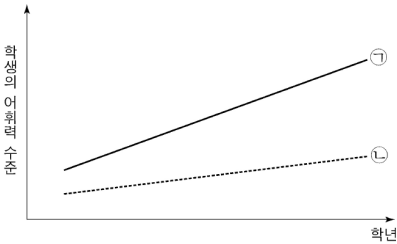
지문에 표시한 부분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봐야하는 부분이다.
3문제에 불과하지만, 지문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결국,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문 전체를 읽어야 한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읽기 능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3.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독서

분석

02

수능 독서란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본질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독서의 방법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기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
독서의 태도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 형성하기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 지니기

해당 [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의 12페이지에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수능 국어의 독서의 본질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1. 독서란 무엇인가?

본질은 ‘本 근본 본 質 바탕 질’

뜻은 ‘사물(事物)이나 현상(現象)에 내재(內在)하는 근본적(根本的)인 성질(性質). 본바탕.’

즉, 독서의 본질이라는 것은 ‘독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평가원에서 정리한 내용이며,
독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수능 국어에서의 독서 문제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다.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 이 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서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 동일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태도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 형성하기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 지니기

독서의 태도 역시 독서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 계획을 세워 자발적으로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독서 문화 형성하기~~
 ≍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기
 ⇒ 자신에 맞는 목적을 확인하고, 독서를 실천한다.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 지니기
 ≍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 읽은 글을 활용한다. 즉, 자신의 입장에서 내용을 재구성하기도 하며, 나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에도 적용한다.

이를 정리하면서 확인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독서의 목적을 확인한다. → ②글을 읽는다. → ③읽은 글을 적용한다.

2. 독서의 방법

독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는 독서의 방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다섯가지 방법을 분류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사실적 사고]

-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추론적 사고]

- 추론적 사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적용: 사고의 확장]

-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기
-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
-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

독서의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사실적 사고] → [추론적 사고] → [적용: 사고의 확장]

독서의 본질에서

[적용: 사고의 확장]은 ‘자신의 입장에서 내용을 재구성하기도 하며, 나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에도 적용한다.’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을 활용하기’전에,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가 있다.

이 독서의 방법들과 관련된 사고는 ‘①독서의 목적을 확인한다. → ②글을 읽는다.’와 연관이 있다.

‘독서의 방법’의 세부적은 내용을 한 페이지로 짧게 정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사실적 사고와 관련된 독서 방법론을 정리할 것이다.

글을 다양한 방법 중에서 <보기>를 통해 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보기>를 구조화하고, <보기>를 통해 특정 관점을 이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추론은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 분석’이 끝나고, ‘제 4장. 추론분석’을 통해 정리할 것이다.

3. 선택적 읽기: 쉬운 것에 집중하자

분명 독서의 본질에서 ‘독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좋은 글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읽’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전략을 말한다면, ‘쉬운 것에 집중하자’다.

사람이 단기로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개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정보 덩어리를 최대한 적은 정보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학문적 방법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는 어려운 단어를 정보 묶음 덩어리의 핵으로 사용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뇌는 어려운 정보를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해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정보와 마주쳤을 때, 사람은 그 정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수능장에서 글을 읽을 때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단어를 접하게 되면, 수험생 분들은 순간 착각을 경험하게 되고, 글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 착각이 더 심하게 오면, 흔히들 말하는 뇌 정지를 겪게 됩니다. 뇌 정지를 겪더라도 수험생 분들은 보통 다시 글을 읽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뇌는 그 어려운 정보에 같은 방식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단어를 피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REMARK 1 다시 말하자면, 쉬운 것에 집중하자.

금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담배를 안 피면 입이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을 대신하게 위해, 금연하시는 분들은 사탕을 입에 물곤 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건형성]

다르게 말해보죠. 글을 읽다가 수험생 분들은 어려운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집중하는 것에서 멀어지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대신 집중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쉬운 단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예제 1]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일종의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이 문장에서 ‘물가 경직성’과 ‘환율의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괜히 이런 단어들에 현혹되지 말고, 쉬운 단어에 집중하죠. ① ‘물가 경직성’과 ‘오버슈팅’ 중간에 따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물가 경직성이 오버슈팅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② 통화는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고, ③ 경제 충격을 장기와 단기로 조정한다는 말로부터 경제충격을 다룰 때 시간의 길이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REMARK 2 어려운 단어를 처리할 때, ‘치환’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문제가 되는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쉽게 안 되겠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은 치환입니다.

즉, 지문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들을 ‘A’, ‘B’ 같은 치환하여 주변부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환하는 전략은 보조적인 전략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된 전략은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를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만으로 이해하기 힘들니 아래 있는 분석 예제2 을 통해 경험해보죠.

분석 예제 2] 선함과 후함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을 선함적 인식이라 일컬어, 그 원천을 후함적으로, 곧 경험에서 갖는 경험적 인식과 구별된다.

쉬운 것을 기반으로 어려운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어려운 표현은 ‘선함’이라는 표현과 ‘후함’이라는 표현이다. 이것을 A와 B로 치환한 문장은 아래와 같다.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을 A적 인식이라 일컬어, 그 원천을 B적으로, 곧 경험에서 갖는 경험적 인식과 구별된다.

‘B적’이라는 표현에 ‘경험에서 갖는 경험적 인식’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B는 경험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구별되는 A는 경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3 구분하며 읽자

이 장에서는 [사실적 사고]에 관한 독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 글의 명시적 정보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다.
-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지문을 나누면서 제대로 읽자

국어는 지문과 문제(선지)로 구분된다.

지문은 많은 정보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 번에 완벽하게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눠서 읽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태도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REMARK 1 지문을 나누는 기준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독서의 본질’은 그 목적을 확인하는 것을 가장 우선이라 말했다.

마찬가지로 지문을 나누었다면, 그 지문을 나눈 기준을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 한다.

2. 적용된 ‘관계’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지문 및 선지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특정 현상을 설명할 때 여러 관계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관계를 우리의 언어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의 관계만 제시될 경우에는 쉽게 그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에 관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예시를 보고 ‘관계’를 분리하여 글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할 것이며, 적용된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10 ~ 13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들어가기 전에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Keyword 1 문제와 해결책

분류	설명	단어
문제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혈액 응고
해결책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	비타민 K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①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②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③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②'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①'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Keyword 2 활성화되는 대상의 순서

- ① 여러 혈액 응고인자
- ② '프로트롬빈 → 트롬빈'
- ③ '피브리노겐 → 피브린': 트롬빈이 하는 일

Keyword 3 활성화 과정

- ① '카르복실화(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
- ② '칼슘 이온과의 결합'

Keyword 4 '전체'와 '부분' : '활성화되는 대상의 순서'와 '활성화 과정'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①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②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Keyword 5 구분의 세분화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구분	비타민 K1	비타민 K2
합성 위치	식물	동물, 미생물 발효
주로 활성화되는 위치	간세포	그 외의 세포
기능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	또 다른 중요한 기능 :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

Keyword 6 부작용

칼슘의

: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

역설

: ①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②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Keyword 7 결핍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

1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1. 칼슘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12.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해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번의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먼저, 혈전이 형성되려면 먼저 섬유소 그물이 형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혈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야 한다. 혈병은 '섬유소 그물(피브린이 모인 것)'과 '혈소판 마개(혈소판이 응집된 것)' 뭉친 것이다. 해당 선지에서는 섬유소 그물이 뭉치면 혈액 손실을 막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문과 맞지 않는다.

10번의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10번의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10번의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Keyword 8 혈병 발생 순서

① 섬유소 그물, 혈소판 마개 ② 혈병

Keyword 9 덧셈 관계

① Σ 피브린 = 섬유소 그물 ② Σ 혈소판 = 혈소판 마개 ③ 섬유소 그물 + 혈소판 마개 = 혈병

REMARK 2 적용된 '관계'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해당 지문에서 '혈액손실을 막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적용되는 관계는 '순서관계'와 '덧셈관계'다.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글을 읽는다면, 제시된 정보를 제대로 정리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문에서 정리된 내용을 단순히 '혈액손실 막는 현상'이라고 뭉뚱그려서 인식하고, 세부적인 과정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된 '관계'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12번의 '㉔ ㉕은 ㉑과 달라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Keyword 2 활성화되는 대상의 순서

- ① 여러 혈액 응고인자 ② '프로트롬빈 → 트롬빈'
- ③ '피브리노겐 → 피브린': 트롬빈이 하는 일

Keyword 3 활성화 과정

- ① '카르복실화(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 ②' 칼슘 이온과의 결합

Keyword 4 '전체'와 '부분' : '활성화되는 대상의 순서'와 '활성화 과정'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첫 번째 문단에서 섬유소 그물이 피브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가)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가)에서는 카르복실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활성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 첫 번째 문단에서 섬유소 그물이 피브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0번의 ‘㉤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3번의 ‘㉠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11. 칼슘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12.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③과 ④: 첫 번째 문단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실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Keyword 10

[순서관계] ①카르복실화(비타민 K) ②카르복실화된 표적 단백질과 칼슘이온 결합 ③ 표적 단백질 활성화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지문 마무리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①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②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1. 칼슘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한다는 것이겠군.
-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12.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첫 번째 문단에서 섬유소 그물이 피브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가)에서는 카르복실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활성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 첫 번째 문단에서 섬유소 그물이 피브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MARK 3 글을 제대로 읽으면 수능 국어 문제는 다 맞춘다.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시작점인 [사실적 사고]에서 필요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 자신에 맞는 목적을 확인하고, 독서를 실천한다.

-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04

읽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방법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기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

읽은 글을 활용하는 방법은 독서의 방법에서 3가지로 정리가 된다.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기’
: 이는 글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글로 적혀있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전문적인 말이 적혀있더라도 혹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더라도, 절대적으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글의 정보를 비판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

: 이 내용은 바로 위에 원리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원리는 위의 원리와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이 원리를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나’ 역시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참으로 부족할 뿐이다. 결국 ‘나’는 글을 읽어가며 계속 공부해야 한다.

⇒ 위 두 원리는 ‘글’과 ‘나’를 비판하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글’과 ‘나’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판과 수용이 반복되면서 글을 통한 학습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
: ‘글’을 통한 학습이 끝난 후, ‘나’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시야가 넓어짐에 따라,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생각하기도 한다. 즉, 글을 통한 학습의 효과는 ‘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된다.

1. <보기>란 무엇인가?

직접적인 활용 개념이 적용된 문제는 <보기> 문제이며, 학습의 방향이 두 방향인 것과 같다.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한다.

먼저, 지문과 상충되는 <보기>가 있다.

이는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기’와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보기>에서 주어진 새로운 관점을 토대로 지문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를 구조화하는 것을 철저히 연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문과 합치되는 <보기>가 있다.

이는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며 감상적으로 읽기’와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서는 <보기>와 지문 사이에 1:1대응이 존재하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지문을 보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지문을 자체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후 문제해설을 통해 위 내용을 확인해보자

2. 관점의 차이: 지피지기

학습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영역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것과 같이,

<보기> 혹은 지문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영역으로 생각이 넓어지도록 문제가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기’와 연관되어 있다

먼저, 지문과 무관한 <보기>가 있다.

전혀 지문과 연관성이 안보여서, 수험생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를 구조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2개’ 지문 혹은 ‘더 많은 지문’이 나열되는 경우가 있다.

다수의 짧은 지문이 나오는 경우, 지문 사이에 관계가 깊을 수도 있지만, 열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설정하는 이유는 ‘나’를 넘어서 다른 무언가로 시야를 넓히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다.

그럼 이를 대항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지피지기’다. 남을 알기위해서 ‘나’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어째서 새로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구조화

글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나’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나’ 아는 것은 ‘나’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역시 ‘나’를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겠지만, 이는 ‘나’를 아는 것은 남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보이는 ‘단어’와 ‘문장’에서부터 해야 한다.

-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한 번 사전에서 확인해보자
- 읽히는 문장과 안 읽히는 문장을 구분하고, 안 읽히는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자

두 번째로 ‘단어’와 ‘문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관계’를 우리는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다. 다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

- 따라서 ‘관계’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 확인된 관계를 ‘표’나 ‘그래프’로 정리해보는 연습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기존에 했던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REMARK 1 정답이 왜 정답인지 눈으로 확인가능해야 한다.

5지선다에서 정답은 하나다.

그 정답은 누구나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 ‘누구나’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며, 나의 상식에서 정답이 납득이 가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의 최종 목표는 ‘정답이 왜 정답인지 눈으로 확인가능하게 함’이다.

14 ~ 17

지문과 합치되는 <보기>

들어가기 전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Keyword 1 ‘현재 존재함’과 ‘존재 가능성’

-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

Keyword 2 ‘A’와 ‘A의 관건(중요한 것)’

- ‘사건의 효과를 평가’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

REMARK 2 ‘대조실험과 변인’에 대한 개념을 미리 공부해두자.

과학 및 기술, 혹은 사회지문에서도 대조실험 관련 개념이 반복해서 나온다. 미리 익혀서 해당 구조를 활용하자.

1. 대조 실험 : 실험군 외에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험하는 것

- ① 대조군 :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 ② 실험군 :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키는 집단

2. 변인 :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

- ① 독립 변인 :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 조작 변인 :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
 - 통제 변인 : 실험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
- ② 종속 변인 :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실험 결과에 해당)

Keyword 3 ‘이상’과 ‘한계’

-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①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②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Keyword 4 ‘한계’와 대처

-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

⇒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Keyword 5 ‘전제’와 ‘이론’

-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함

: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Keyword 6 실험군과 대조군, 그리고 실험의 결과

구분	실험군	대조군	실험의 결과
이중차분법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
1854년에 스노	수원이 바뀐 주민	바뀌지 않은 주민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	-	-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

//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Keyword 7 ‘수단들(1, 2)’과 ‘목적’ /

[수단]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과 ‘변화 발생의 동시성’

[목적]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동시’와 ‘동시가 아님’ = ‘변화 발생의 동시성’과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

REMARK 3 중요문장과 예시는 대응하며, 이 대응을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왜 예시를 사용하는가? 중요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사용한다.

중요문장이 너무 요약적이라서 글을 읽는 독자에게 실감이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중요문장의 구성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예시로 글을 길게 풀어 쓰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든, 결국 중요문장과 예시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요문장과 예시문장의 1:1 대응을 정리할 때, 필요하다면 색깔 펜을 사용해서 연습하자.

Keyword 8 평행추세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	㉡
충족되지 않는 속성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	변화 발생의 동시성
충돌되는 개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 <u>비교집단</u> ’에 비해 ‘ <u>시행집단</u> ’에서 더 큰 경우	‘ <u>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u> ’과 ‘ <u>변화 발생의 동시성</u> ’
평행추세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	‘ <u>비교집단</u> ’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 <u>시행집단</u> ’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 <u>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u> ’보다 ‘ <u>변화 발생의 동시성</u> ’이 평행추세가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음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Keyword 9 ‘수단들’과 ‘목적’

[수단]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

[목적]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14.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15.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 | | | |
|---|----------|----------|
| | <u>A</u> | <u>B</u> |
| ① | 클 | 클 |
| ② | 클 | 작을 |
| ③ | 같을 | 작을 |
| ④ | 작을 | 클 |
| ⑤ | 작을 | 작을 |

1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 (단위 :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해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4번의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14번의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다.’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REMARK 4 표현의 강도를 통한 출제방식을 확인하자.

12번의 선지 2번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의 강도를 통한 문장 바꾸기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정리했다.

1.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 죽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을 수는 없다.
2. 대부분의 동물은 잠을 자야만 한다. ⇔ 극소수의 동물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14번의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비교집단과 시행집단의 변화의 크기가 동일하다.

14번의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14번의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 ⑤ A B
 작을 작을

: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사건)이 없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고용률 증가 정도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 시행집단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크므로 사건 전의 상태(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 증가가 작게 된다.

따라서 ㉠의 경우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 즉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은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게 된다.

REMARK 5 비교 관계가 나올 경우, 꼭 비교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A	B
비교대상	시행집단과 비교집단	㉠‘ <u>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u> ’와 ‘ <u>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u> ’
구분 기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다름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여부
세부 사항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큼’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

REMARK 6 계산식이 나올 경우 꼭 확인하자.

: 두 번째 문단에서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은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는 지문이 있으며, 이 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확인 할 수 있다.
 ⇒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 ‘사건의 효과’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여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 (단위 :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REMARK 7 지문을 근거로 <보기> 해석할 때는 1:1대응을 확인하자

15번과 16번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자. 해당 문제를 풀 때 1:1 대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거의 대부분 1:1대응을 했다. 단, 기존의 문제에서는 지문과 선지의 1:1대응이었다.

하지만, <보기>가 있을 때의 1:1대응은 지문과 선지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1:1 대응을 적용한 것이다. 즉, 기존의 문제를 푸는 방법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럼 1:1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당 1:1 대응은 ‘왜 이 선지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이유를 지문에서 찾는 행위를 눈에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가 발생한다. 결국 1:1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과 지문에서 발명한 이유를 연결하는 사고,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떤 특정 관계를 찾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①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①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이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15.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 | | | |
|---|----|----|
| | A | B |
| ① | 클 | 클 |
| ② | 클 | 작을 |
| ③ | 같을 | 작을 |
| ④ | 작을 | 클 |
| ● | 작을 | 작을 |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 (단위 :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던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던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04 ~ 09

다른 관점을 확인: 지피지기

들어가지 전에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①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②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③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 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Keyword 1 **반면교사**와 **해결책**

- 반면교사: 다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

Keyword 2 **㉠불변과 ㉡변화**

Keyword 3 **다른 분야로의 적용**

Keyword 4 ‘수단’과 ‘목적’

-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 하고자 하였다.**’

-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 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Keyword 5 '수단'과 '목적'

[목적]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

[수단]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

전제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수단	목적
타 사상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
도가의 무위: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
법가의 권세: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함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점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대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문을 현실에서 구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①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②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③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④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Keyword 6 불변과 변화

Keyword 7 문제와 해결책

Keyword 8 '편찬방식'의 나열: 수단

-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
-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음
-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 ㉔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㉓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㉒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Keyword 9 수단과 목적

Keyword 10 문제와 해결책

REMARK 8 문제(Problem)와 해결책(Solution) 구조를 확인하자.

많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지만, 해당 구조에 매달려서 그 구조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이 구조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연결성 이 연결성을 통해, 암기가 아닌 이해로 넘어가서 지문을 이해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③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⑤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체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기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6. ㉓~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㉓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 ② ㉔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 ③ ㉔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 ④ ㉔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 ⑤ ㉓과 ㉔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윗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ㄴ.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해설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REMARK 9 관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읽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지문 (가), (나)가 동시에 제시되는 것은, 각각의 관점들을 확인하고 관점의 차이를 통해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을 문제로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된다. 이런 원리가 적용된 문제가 4번의 문제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으로 표현되었다.

그럼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건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혹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2개 혹은 다수의 지문들 중에 하나를 정확히 읽어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를 줄여서 표현한다면 ‘지피지기’라고 할 수 있다.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 하고자 하였다.

5번의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5번의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6번의 ‘③ ㉠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현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7번의 ‘㉢.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6번의 '㉠ ㉡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6번의 '㉡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6번의 ㉤ ㉥과 ㉦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 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6번의 '㉡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6번의 '㉣ ㉤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 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8번의 '㉡ ㉢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REMARK 10 구분이 있다면, 그 구분할 사용하는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 분명히 해당 입장이 정반대다.

해당 입장을 다르게 만드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용어를 그대로 쓸 것인가, 명분에 맞추어 바꿀 것인가’다.
이 기준을 찾는 추론이 8번 문제의 2번선지에 적용되어있다.

수능 및 모평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찾는 추론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준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하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였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7번의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7번의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7번의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 지문에서 취소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5번의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5번의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5번의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ㄴ.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고려의 용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변형하려는 것이다.

REMARK 11 ‘사실’과 ‘가치’의 차이를 구분하자.

진위 眞 참 진 僞 거짓 위

: 정말과 거짓말. 진짜와 가짜.

8번의 2번 선지는 흔히들 말하는 ‘참-거짓 판단’을 해야 한다. 참 거짓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구분하며, 진위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위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에 변화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는 옳고 그름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지문마무리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획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 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 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 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에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대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였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③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는다.
-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⑤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제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 ② ㉡은 도구나 뱀과 사상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 ③ ㉢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 ㉣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 ⑤ ㉠과 ㉡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7. 밑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닫기 한다는 뜻이다.
 ㄴ.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닫기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문학

문석

III

05 수능 문학이란

구분	학습 방법
문학의 본질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기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기
	문학과 인접 분야(다른 형식의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문화적 현상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하기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기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기
문학에 대한 태도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기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해당 [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의 19페이지에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수능 국어의 문학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1. 문학의 기초

문학의 본질에 관한 문장을 분석하면

1. 문학에는 인식적, 윤리적, 기능이 있으며
2. 해당 기능들을 중심으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의 효용과 가치는 인간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공감]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수양]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이는 문학이 한 개인을 넘어서,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며

주관적인 자기 해석이 아닌, 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해석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능 문학을 시작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문학에서 글쓴이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글쓴이는 이를 절대로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마치 그 '의도'를 이야기로 포장하여 선물로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의도'를 불분명하게 전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야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포장된 선물을 볼 때 우리가 그 선물의 내용물을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의도를 포장하고 있는 이야기 뭉텅이를 보면서 우리는 글쓴이의 의도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상상한다.

이와 같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 하는 것이 글쓴이의 목적이다.

그래서 문학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도’를 파악을 위해 긍정-부정의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2. 이야기의 형태: 내용적 문제

우리가 굳이 국어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분석하지 않더라도 정말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눈을 떼지 않고 본다. 아니면 진짜 망작이라고 하는 영화들을 볼 때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린다. 어떤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분명 비평을 배우지 않았어도 재미있음과 재미없음, 좋은 작품과 별로인 작품을 구분한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의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누군가의 손에서 재구성되어 작품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내용’ 혹은 ‘사건’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있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도 이런 내용적인 것들, 우리가 겪는 사건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로 만든다.

3. 이야기의 형태: 형식적 문제

살아가다가 문득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도저히 깨지 않는다. 혹은 하루가 좋게 흘러갈 때는 그 날 아침잠이 확실히 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문득 영화를 보면서 그런 패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쟁영화에서 여친 사진을 보면서 ‘난 집에 돌아가면 결혼할거야’를 말하는 친구들이 집에 못 돌아간단든지, 밝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면 무슨 일이 생긴단든지, 혹은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작은 사건들이 모여야 한단든지... 이처럼 패턴이 존재하고, 문학에서도 이런 정형화된 패턴이 존재한다.

수능 문학에서도 이 패턴에 관한 문제를 낸다.

REMARK 1 문학 문제를 풀 때, 내용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를 구분하자.

어느 성격의 문제인가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지며
해당 문제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용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를 구분해야만 한다.

22 ~ 27

내용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식적 문제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식적 문제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적 문제

<보 기>

선생님 :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식적 문제

- ①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적 문제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내용적 문제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남으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곧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REMARK 2 내용적 문제와 형식적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익혀야, 해당 문제 구분을 이해할 수 있다.
 ⇒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했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문학 문제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자.

06

시의 내용적 문제

1. 시에서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

시에도 이야기가 있다.

소설에서도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 인물(혹은 대상)을 쫓아가야 한다.

대상들을 찾아서, 대상들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문학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함몰되지 말아야 하며,

‘의도’를 파악을 위해 긍정-부정의 이분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접 눈으로 ‘이야기’를 확인해야 한다.

2. <보기>를 활용한 시의 해석

시는 가장 감정적인 문학 형식이다.



시의 경우, 감정에 몰빵한 문학형식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기>를 구조화하여 논리적 상황을 설정 한 수,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 대상, 주제, 의미 등

한편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야기’와 ‘의도’의 거리를 최대한 벌리려고 하기 때문에, 단순 ‘긍정-부정’ 관계로 해석하지 말고, <보기>에서 주어진 근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32 ~ 34

<보기>가 없을 때의 시의 해석

들어가기 전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낼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Keyword 1

○ 향아

△ 나 (드러나지 않음)

‘나’는 ‘향’에게 말하고 있다. 향이는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향이에게 옛날로 돌아가자고 한다.

일반적으로 옛날은 ‘시간 개념’이지만
‘~로 돌아간다’는 말을 생각하면, ‘공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문장을 해석해보면,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을 수식하고 있으며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은 ‘석양’을 수식하고 있다.
‘석양’은 시간개념으로 ‘옛날’의 시간개념을 통해 이어진다. 즉, ‘옛날’에 대해 과거에 봤던 웃음과 얼굴이 보였던 ‘석양’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향이에게 내 눈동자를 보라고 말하며

- 회올리는 무지갯빛 하울의 눈부심에 낫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미끈땡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 젊을 때는 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한편으로 지금은 미끈땡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긴, 병인이 든 상황이다.

병든 ‘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나일 수도 있고, 향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

-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 우리 얼굴에 맞지 않는 발돋는 흥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
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나는 향이와 그 미개지에, 풍속, 마음밭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면,

병든 ‘나’는 ‘향’에게 병들지 않았던 ‘과거’ 이야기를 하며 그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REMARK 1 이야기에는 ‘대상’ 존재하며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시의 ‘이야기’는 소설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대상이 있으며, 대상은 무언가와 ‘상호작용’한다.

물론 ‘시’는 이야기에 직접 말하는 화자가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드러나지 않는 ‘화자’ 역시 대상이며, 이는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과 마찬가지로, 대상들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REMARK 2 주어가 생략된 표현에서 꼭 주어를 확인하자

시에서 주어가 생략된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화자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가 생략된 문장에서 우선적으로 화자를 주어로 고려하시고, 혹시 의미가 이상하다면 다른 대상을 주어로
사용해야 한다.

REMARK 3 ○ 와 △ 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로 ‘긍정-부정’만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 와 △ 는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 도형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다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1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쌍한 표정을 짓던 2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3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Keyword 2

- | | |
|---|---|
| <input type="radio"/> 그 | <input type="checkbox"/> 부주의한 아이들 |
| 3 <input type="checkbox"/>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 | 1 <input type="checkbox"/> 유리를 깬 아이 |
| | 2 <input type="checkbox"/> (유리를 까지 않은) 다른 아이들 |

‘그’가 사는 집의 담장은 유리로 되어 있다. 당연히 유리 덕에 담장주변은 빛났다.
 어느 날, 부주의한 아이들이 놀다가, 반사된 햇빛 때문에 유리담장을 깬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 우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다른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평소처럼 놀았다.

또 어느 날, 어떤 한 아이가 송판으로 담장을 쌓자고 했지만 이내 쫓겨났고, 유리담장은 매일 깨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 모든 아이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유리담장을 치웠다. 유리담장을 치운 골목은 빛을 어두워졌고, 아이들은 더 이상 놀지
 않고, 일렬로 줄을 선 채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벽돌을 나르는 것인가... 혹시 담장?)

이야기를 보면, ‘그’는 아이들을 길들이기 위해 유리담장을 설치했던 것 같다.

32 ~ 34

<보기>가 있을 때의 시의 해석

들어가기 전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Keyword 2 (가)와 (나)의 공통점 :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

Keyword 3 부정적 현실과 회복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
 /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

Keyword 4 수단과 목적
 수단 : 환영
 목적 : 1.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킴 2.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임

(가)와 (나)의 공통점: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

(가)의 해석

-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
 : ‘미끈땀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김,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허물어질까’,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
 :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침,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림,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 맨발을 벗고 콩바심,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을 춤, ‘마음밭’
 :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나)의 해석

- 환영(幻影) : 유리 담장 - 권력 : ‘그’
-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떻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됨,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
 :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들어가기 전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려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노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땡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군.

: 먼저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을 바탕을 두’는 것은 전통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터전이 확장되는 것’과 다르다. 두 번째로 순수성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순수성은 손상된 것이다.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보기>와 동일한 표현이 될 수 없다.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보여 주는군.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넠’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보여 주는군.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우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승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아이들’에게 ~~어달아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나)에서 아이들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이들을 기만했다.
- ③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주는군.
- ③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행상**을 보여 주는군.

지문 마무리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크'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크'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군.
: 먼저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을 바탕을 두'는 것은 전통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터전이 확장되는 것'과 다르다. 두 번째로 순수성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순수성은 손상된 것이다.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보기>와 동일한 표현이 될 수 없다.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우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07

소설의 내용적 문제

1. 인물을 따라가면 중요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물은 움직인다. 행동한다.

물론 인물의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에게는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인물과 사건, 배경을 통해 전달된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인물은 움직인다 행동한다.

REMARK 1 인물을 따라가야 한다.

인물의 행동은 중요사건으로 이어지며,

작가의 의도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2.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한다

고전소설이 적힌 시대에는 한 개인에게 붙여지는 이름들은 많다.

별호(別號), 명호(名號), 외호(外號)

계급(階級)과 입신양명에 따른 관직(官職) 등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표현들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지금의 시대에서 이같은 표현들은 정말 생소하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인물의 이름들을 확인해야 한다.

REMARK 2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을 표시하면서 읽자.

28 ~ 31

인물을 따라가면 중요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별컸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훅**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힐 자식, **내가** **엠펜*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봐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찰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퐁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잡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 마군 헌병.

Keyword 1

○ 방삼복

△ 서 주사

□ 방삼복의 아내

◇ 백 주사

⬠ 백 주사의 아들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해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뺨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말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데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헌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보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28번의 ‘㉡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28번의 ‘㉢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즐라멜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접은 머리가 절반이나 뿔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D]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퐁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히, 살 때가 댘답니다.”

그러고는 ⑥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28번의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방삼복이 인맥에 대해서 나불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나불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사람은 ‘백주사’이며, 동상자는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을 바꿔서 오답을 만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8번의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30번의 ‘① ④: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30번의 ‘② ⑥: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잡았다.

보이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앵피(MP) : 미군 헌병.

28번의 ‘㉠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백주사이며, 방삼복은 이 말을 듣고 있다. 대상을 바꿈으로서 오답을 구성했다.

30번의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백주사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고향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따라서 고향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30번의 ‘㉣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30번의 ‘㉤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REMARK 3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꼭 인물을 따라가야 한다.

문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식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문제에서
대상, 다시 말해 인물을 바꾸면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
(예시: 28번의 1번 선지, 28번의 4번 선지)

혹은 인물과 연결된 사건이나 속성을 바꾸어서 오답을 유도하기도 한다.
(예시: 30번의 3번 선지)

이와 같은, 오답을 예방하는 방법은
인물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여
소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지문 마무리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뺨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말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보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D]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E]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이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잠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 미군 헌병.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방삼복이 인맥에 대해서 나불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나불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사람은 ‘백주사’이며, 동상자는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을 바꿔서 오답을 만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백주사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고향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따라서 고향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18 ~ 21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한다

들어가기 전

21번 보기 분석

<보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Keyword 2 '수단'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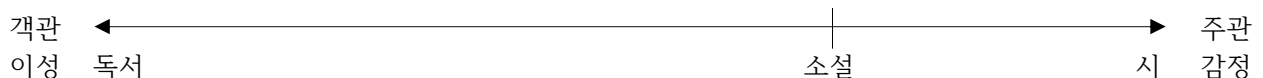
: '인물의 욕망을 실현'과 '음모를 실행함'

: '㉠환상적 요소가 사용,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함'과 '음모의 진행'

Keyword 3 음모의 실행과 방해

-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REMARK 4 소설은 감정적인 문학 형식이다.



소설은 감정이 섞인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 논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기>를 제시하고, 논리적 상황을 설정한다.

그래서 <보기>가 있다면, 이를 읽고 지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긍정-부정' 관계로 해석하지 말고, 주어진 <보기>에 맞추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장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알,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알,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알,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알,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며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가?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알,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진누나 소씨, 외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알,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알,

“어지럽게 굴지 말라.”

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알,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뿔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알,

“굳이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며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알,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별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Keyword 1

○ 셋째 부인 여씨

△ 둘째 부인 석씨

□ 상서의 서모, 석파

◇ 상서

⬠ 양부인

⬡ 첫째 부인 화씨

▭ 시녀 계성

⊕ 친누나 소씨

▴ 의남매 윤씨

⬡ 여씨 심복 미양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20.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음모 모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며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해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전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뻐지 않으리로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알,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엮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알**,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알,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알,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듣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띄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19번의 ‘㉠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19번의 ‘㉢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20.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 ㉡을 여씨가 말하기 전에, 상서는 청운당에 가서 여씨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녹운당에서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듣는 모습을 보았다. 상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여씨는 운취각에 갔다고 상서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며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19번의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21번의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21번의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21번의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19번의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뻐던 일들을
날날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꿰리고 별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19번의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21번의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
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21번의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상서는 여씨가 음모의 주범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집안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한다. 또한 소씨와 윤씨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상서는 여씨를 교화하려고 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양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여씨를 내치는 과정에서 상서와의 대립을 확인할 수 없다.

REMARK 5 대사나 행동이 누가 했는지 헛갈린다면, 표시해서 혼동을 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글이 길어지면서, 누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착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착각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에게 한 표시를 사용하여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소에 표시를 하면서 인물들을 구분하고,

특정 인물이 한 행동과 대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지문 마무리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전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알,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엮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알,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알,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알,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매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가?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알,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들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알,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알,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알,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알,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며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알,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은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꿰리고 별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20.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엄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굴’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상서는 여씨가 음모의 주범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집안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한다. 또한 소씨와 윤씨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상서는 여씨를 교화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여씨를 내치는 과정에서 상서와의 대립을 확인할 수 없다.

08

문학의 내용적 문제

1. 복합지문에 대처하는 방법

시나 소설이 섞여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문학에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는 글을 읽어가며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한 문학 이론에서 벗어나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는 것이 문학의 내용을 제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야기’ 밖에 없다.

2. 논리적 구성을 문제에서 확인하자.



문학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논리적 구성은 ‘문학지문’ 밖에서 설정된다.

그것이 <보기>일 수도 있고, 혹은 문제 자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먼저 읽어서, 논리적 구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문제나 <보기>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면, 단순 ‘긍정-부정’ 관계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어진 <보기>에 맞추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22 ~ 27

복합지문에 대처하는 방법

들어가기 전에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 ~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①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②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구분	(가)	(나)	(다)
작가 정보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음	①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②옥에 갇혔을 때 지음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
공통점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잡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뒀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샷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매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계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뒀에는 새 다 낫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낙대에 맞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Keyword 1 사시(四時): 봄, 여름, 가을, 겨울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켜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꺾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간장이 다 썩어 뉘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냐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넋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REMARK 1 고전시가의 주제는 거의 정해져 있다.

[자연친화]

가난한 생활에도 만족함 : 안빈낙도, 안분지족, 단사표음, 단표누향, 빈이무원

이상세계: 무릉도원 (복숭아꽃 만발한 이상향)

[충(忠)]

소나무, 매화, 난, 국화, 대나무 : 지조와 절개
자연에서도 임금님에 대한 은혜를 느끼고 그리워함
때로는 '임'이 임금님인 경우도 있음

[사랑과 그리움 / 이별 혹은 슬픈 상황]

불가능하고 과장된 상황을 상정하여 '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함
혹은 임과 헤어져서 그리워기 때문에, 빙의라도 해서 '임'에게 가고 싶음

⇒ 자신을 여성화하여 임금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설정하여, 충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효(孝)]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또는 효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서러움

[바람직한 삶]

유교에서 권장하는 바람직한 삶에 대해 정리함

[현실 비판]

탐관오리 또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함
풍자의 방식을 주로 사용함

[고통스러운 삶]

가난하고 고단한 일상을 묘사하여,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강조함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푹푹 푹푹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갈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Keyword 1

○ 우리들 (그 집의 아이들)

△ 그의 아이

□ 그 (혹은 나)

◇ 어머니 (안주인)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뉘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입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곧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해설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낚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뒀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계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채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뒀에는 새 다 낚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저 늙은이
낙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 (가)에서 '나'는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저 늙은이'는 눈 오는 걸 잊은 채 낚시에 몰입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연에서 즐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없다.

REMARK 2 거리감 거리(距離):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 感 느낄 감

- 어떤 대상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느낌: 입장이 다름
-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간격이 있다는 느낌. 보통 친숙하지 않아 서로 마음을 트고 지낼 수 없는 서먹서먹한 느낌을 이른다.: 공통화제가 없음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쫓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길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간장이 다 썩어 낚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냐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냇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지금은 겨울이며, 이는 동짓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밑줄 친 ‘새봄’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며, 이 시점이 모든 게 늦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다르다.
- ③ ㉢을 통해,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이는 단장(斷腸)을 표현한 것이다. 단장이란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을 뜻하며 보통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에 대한 고사가 있다.
- ④ ㉣을 통해,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죄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끈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적양의 복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푹푹 흐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비밀이 감춰진 장소는 그가 자란 '그 집'이었다. 그의 아파트에서 자라는 것은 '그의 아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지문 마무리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낚고 아이는 발을 가니
 뒷 뒵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매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계는 어이 내리는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뒵에는 새 다 낚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저 늙은이
 낚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쫓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간장이 다 썩어 닳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나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냇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적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똑리 똑똑리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러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지금은 겨울이며, 이는 동짓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밑줄 친 ‘새봄’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며, 이 시점이 모든 게 늦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다르다.
- ③ ㉢을 통해,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이는 단장(斷腸)을 표현한 것이다. 단장이란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을 뜻하며 보통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에 대한 고사가 있다.
- ④ ㉣을 통해,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비밀이 감춰진 장소는 그가 자란 ‘그 집’이었다. 그의 아파트에서 자라는 것은 ‘그의 아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뉘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라~~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가)에서 ‘나’는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저 늙은이’는 눈 오는 걸 잊은 채 낚시에 몰입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연에서 즐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없다.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깃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공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09

문학의 형식적 문제

‘문학이론’은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반복되는 공통적인 형식을 정리되었다. 교과과정 중에 배우는 문학적 도구는 이 문학이론에서 비롯되었다.

1. 문학 개념어를 익혀야 한다

‘문학 개념어’는 문학적 도구들의 이름이다.

이런 도구들의 용도나 활용법으로 쉽게 풀어져서 국어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실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면 ‘특정 용어’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용도나 활용법이 생략되어 나오기 때문에, 개념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번 6월 모평에 ‘문학에 형식적 문제’와 관련한 문학 개념어를 정리할 것이지만, 이 형식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 개념어를 위한 교재를 정하고 이를 숙지해야 한다.

2. ‘수단 - 목적’ 관계를 확인하자

문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자기 자신을 ‘그’ 또는 ‘그녀’와 같이 제 3자로 표현하는 것은 ‘서술자로서의 자기 자신’과 ‘등장인물로의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거리감은 기존에 익숙한 무언가를 익숙하지 않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익숙하지 않은 감각은 ‘자아 분열로 인한 불안감’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주관을 객관화’하며 ‘자기의지를 해체시키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중략)...

형식적 문제가 고안될 때, 이러한 ‘문학적 도구’와 ‘효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수단-목적’을 고려하여 선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단-목적’ 관계를 통해 선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형식적 문제의 선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들어가기 전에

18.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
②	독백을 반복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냄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	세태를 비판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	내용을 전개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선지	형식	논리적 구성
①	<제1수>의 초장, 중장 <제1수>의 종장	풍경 묘사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
②	<제2수>의 초장, 중장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 <제3수>의 초장	인물의 행위 그(인물의 행위의) 결과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	(<제3수>)의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
⑤	<제4수>의 초장 <제1수>의 중장	동적인 분위기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입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선지	대상	문학 개념어 혹은 논리적 구성
①	(가)의 ‘녹음’ (나)의 ‘동방’	평온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②	(가)의 ‘언제’ (나)의 ‘언제’	미래의 어느 시기 과거의 어느 시기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입의 잠’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 는 계기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Keyword 1 수단과 목적

[대상]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

수단	효과 혹은 목적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함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함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함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됨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함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 ⇒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함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함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함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냄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냄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함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넨	-

REMARK 1 선지에서 보여지는 논리적 구조를 확인하자.

대부분의 선지가 ‘수단-목적’ 관계로 정리가 되지만, 다른 논리적 구조를 통해 선지가 실현되기도 한다. 다른 논리적 구조를 발견하여 자신만의 논리적 도구로 선지 분석을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논리적 구조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보일 때는, 신유형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에서 보여지는 논리적 구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알,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엮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알,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알,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알,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며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알,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 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알,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뻐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별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
②	독백을 반복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냄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	-

REMARK 2 모르는 문학 개념어가 나오면 꼭 공부를 해야 한다.

1. 과거와 현재를 교차: 이는 원래 시간 순서상 역순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인물의 성격 변화: 말 그대로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악한 인물이 착한 인물로 바뀌는 것, 어떤 계기로 어떤 인물이 각성을 하거나 흑화를 하는 것을 성격 변화라고 한다.
3.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 병렬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나란히 서술하는 것, ‘한편’이나 ‘이 때’, ‘그 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4.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읽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 효과의 수단으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할 수도 있고,
5. 한 인물과 다른 인물 간의 다면적 갈등: 이 소설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씨와 석씨, 여씨와 상서, 여씨와 양 부인 등 한 인물이 다른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빛는 갈등이다.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잡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뒀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계는 어이 내리느고
술 익자 채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뒀에는 새 다 낫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저 늙은이
납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22.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	세대를 비판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	구조된 감정을 드러냄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	내용을 전개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형식	논리적 구성
①	<제1수>의 초장, 중장 <제1수>의 종장	풍경 묘사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
②	<제2수>의 초장, 중장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 <제3수>의 초장	인물의 행위 크(인물의 행위의) 결과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	(<제3수>의)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
⑤	<제4수>의 초장 <제4수>의 중장	동적인 분위가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

REMARK 3 고전시가에는 시어의 배치 및 운율에 대한 형식이 있다.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대상	문학 개념어 혹은 논리적 구성
①	(가)의 '녹음'	평온한 분위기
②	(가)의 '언제'	미래의 어느 시기
③	(가)의 '새'	회자의 감정이 어입된 대상물
④	(가)의 '잠든 나'의 '잠'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
⑤	(가)의 '돌아가니'	회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켜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집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음력 설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간장이 다 썩어 낫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냐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냇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	세태를 비판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	내용을 전개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대상	문학 개념어 혹은 논리적 구성
①	(나)의 '동방'	암울한 분위기
②	(나)의 '언제'	괴거의 어느 시각
③	(나)의 '자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
④	(나)의 '임의 잠'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배개
⑤	(나)의 '돌아오니'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 기

REMARK 4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감정절제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대상이 화자의 정서를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의인법으로 표현된 것들도 감정이입이 된 사례들이다.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대상을 의미한다. T.S. 엘리엇이 사용한 것으로 감정이입보다 역사가 짧다. 화자가 정서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대상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슬픔을 내리는 비로 표현한 경우 객관적 상관물은 '비'가 된다. 따라서 감정이입에 사용된 대상들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 중에는 감정이입이 아닌 경우도 있다. 객관적 상관물이 정서 유발의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 화자의 정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의 정서를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로 나타냄은 이 소리가 슬픔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지 감정 이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느끼게 해 주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에만 해당된다.

추가로 감정 절제란 화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이다. 감정을 절제하여 전달할 때 감정 전달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유리창에서 슬프다는 말은 없어도 독자는 그 슬픔을 느낀다. 상황과 관련 심상을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 정서를 유도하기에 외부에서 서술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그 울림이 더 구체적인 것이다.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푹푹르 푹푹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	세태를 비판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	구조된 감정을 드러냄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	내용을 전개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그 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함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 ⇒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함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함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함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뒤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냄	-
㉢	(가)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냄
㉣	(가)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함
㉤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넨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수단	효과 혹은 목적
㉔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
㉓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냄
㉒	(나)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함
㉑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넨	-

REMARK 5 비유와 상징

비유의 예시를 들어보죠. 다 아시다시피: 내 마음은 호수요.

비유는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이 때, '내 마음'이 원관념이고, '호수'가 보조관념이다.

어째서 비유를 사용하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호수'의 색깔, 물이 찬 모습, 자연과의 연관성 등을 떠올리며 '내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발생한다.

상징이 비유와 다른 이유는 '원관념'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원관념'이 없는 구조는 완전히 다른 효과로 이어진다. '원관념'이 없다는 것은 '작가가 전달하려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며, 남은 '보조관념'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예를 들면, 위에 보이는 기형도의 '전문가'에서 전문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보이는 것은 '그'와 '아이들'이다. '유리담장'과 '벽돌'이다. 보이는 이야기는 '전문가'와 전혀 무관하다. 독자들은 시의 이야기와 시의 제목 사이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만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상징이다. 원관념이 없는 이야기가 독자의 지적 상상력을 자극하면 상징은 발생한다.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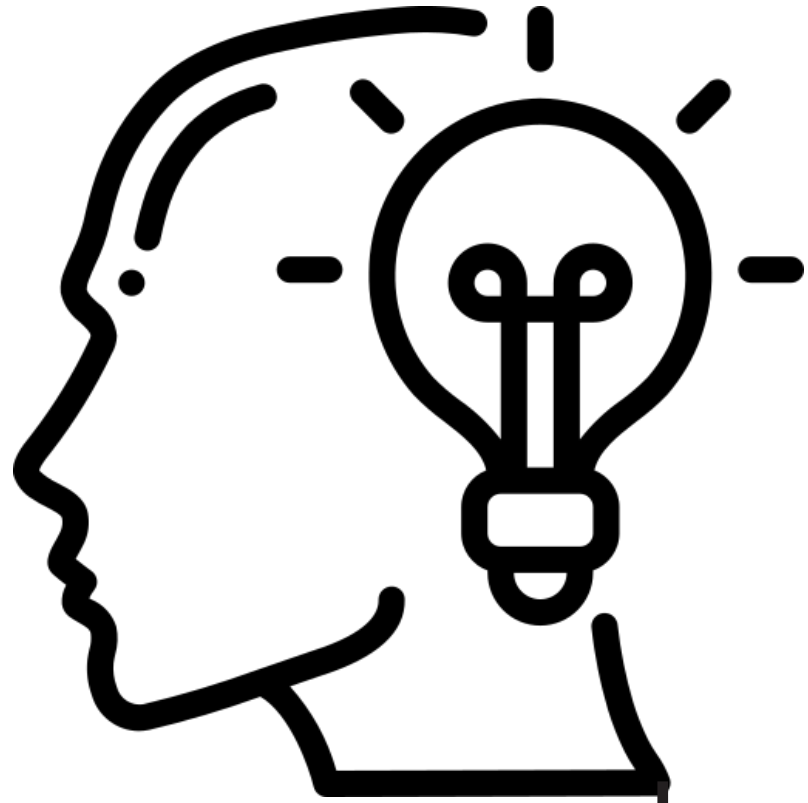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Em



먼저, 국어는 해설을 통해 공부해야 한다.

국어 문제를 푸는 것은 국어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한 반복연습에 불과하다. 실제 국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국어 지식 및 능력을 기르는 근거 자료는 해설에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수험생은 문제 푸는데 집중하다보니, 해설을 대충 읽고 넘어가고 한다. 이 책은 해설을 중심 콘텐츠로 기획하여, 해설을 통해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느끼길 바란다.

두 번째로, 개념과 문제풀이의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

개념과 문제풀이의 거리는 개념을 통해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개념을 통해 문제풀이를 하는 그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내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지만, 모든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며 거리감을 줄어드는 감각을 느끼길 바란다.

세 번째로, 수능 국어에 필요한 논리적 '개념'을 알아야 한다.

분명 평가원이 수능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년 수능 홈페이지에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 정리된 자료집이 배포된다는 것을 어떤 학생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직접 평가원에 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수능에 필요한 논리적 '개념'을 알기를 바란다.

Sense